

“한인 정치력 신장과 한미 양국의 다리 역할을 할 것”

영 김 연방하원의원

“미국 미래 결정하는 지도자 양성해야”

2020년 미국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제 39선거구에서 영 김(김영옥), 제48선거구에서 미셸 박스틸(은주), 워싱턴 제10선거구에서 메릴린 스트릭랜드(순자) 등 여성 세 명과 뉴저지 제3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등 총 4명이 미 연방 하원의원이 되어 미주 한인 이민사에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되었다. 연방하원 438명 중 한국계 4명(민주 2명, 공화 2명)으로 미연방 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한인이 진출하였다.

영 김 의원은 재수 끝에 숙원이던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선거에서 영 김 후보는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 현역의원과 접전 끝에 승리를 확정 지었다. 그는 2018년 치뤄진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처음 캘리포니아주 제39 지구 하원 의원에 출마해, 잠정 개표 결과 당선이 유력했으나 막판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시스네로스 의원에게 4,000표 차로 아쉽게 낙선했는데 이번에는 그 4,000표차로 이겨 설욕한 셈이 되었다.

영 김 의원은 “지금까지 응원해 준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앞으로 한인 정치력 신장과 한미 양국의 다리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영 김 의원은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분과위원장의 정책 담당 보좌관으로 21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워싱턴의 의사당이 전혀 낯설지 않을 것이다.

1962년 한국 인천에서 태어난 영 김은 어린 시절을 서울에서 보낸 뒤 1975년 가족들과 미국령 괌으로 이주했다. 괌에서 중학교를, 하와이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후 USC에 진학해 경영학을 전공했다.

영 김은 대학 졸업 후 금융계에서 일하다 의류 사업을 했고, 13선을 하고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에드 로이스(Ed Royce)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21년 동안 그를 보좌했다. 에드 로이스 의원의 아시아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할 당시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북한 인권 현안 법안,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드 로이스 위원장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 한국 정계에도 이름을 알린 바 있다.

2014년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2년간 주 의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미셸 박스틸의원과 마찬가지로 영 김의 승리도 한인 사회의 전폭적인 후원과 지원의 성과였다. 게다가 지난 2년 전의 안타까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미 전국 공화당 집행부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1순위 지역 구로 선정하고 많은 공을 들이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 사진=영 김 하원의원 선서 장면 / 출처=의회 공식 웹사이트



▲ 사진=영 김 / 출처=영 김 공식 Flickr 계정

주었다. 또 영 김의 승리에는 캘리포니아 공화당 집행부의 구조적인 변화도 한몫했다. 지금까지는 공화당은 ‘백인 남성들만의 공화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지난해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공화당 임원선거에서 처음으로 30대 라틴계 여성이 당의장으로 당선되었고, 부의장도 50대 중국계 남성이 당선됨으로서 백인들이 독식하던 풍조가 사라지고, 실전에 강한 실무 위주의 리더들로 공화당의 체질이 개선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국 공화당 위원회에서 영 김의 재도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1년간의 에드 로이스 정책보좌관의 경험을 살려 영 김은 연방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 업무, 미국과 아시아 관계 업무,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의원 연맹협의회 관련 업무와 북한 인권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온 경험을 토대로 의회 내에서 미국과 한국이 상호 협조하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 김은 과거 의회에서 로이스 전 외교위원장이 다루었던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핵무기가 모두 폐기돼서,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영 김은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인턴십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할 것이며, 한인들이 더욱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 김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은 영 김이나 미셸 스틸, 앤디 김처럼 정계에 진출하고, 정치 현장에서 일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 많은 한인들이 정치 세미나나 컨벤션 등에 참석하여 정치인들과 만나 일하면서 고무되고, 또 자원봉사자나 스태프로 직접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험을 얻고 한인 정치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한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많은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투표하는 것이 우선이고, 좀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선거 캠프에 참여해서 자원봉사하고 정치에 참여할 때 우리 한국계 미국인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또 다른 미국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한인 이민자로서 한인 커뮤니티에 무엇이 중요한 이슈인가를 파악하고, 그런 문제를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토의하면서 현안을 의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는 곧 힘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당연히 투표하는 커뮤니티에 신경 쓰게 돼 있다. 아울러 당적을 떠나서 우리 한인들이 미국 의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의 영 김 의원을 만드는데 일등공신은 그녀의 남편 찰스 김이다. 찰스 김은 남가주 한인커뮤니티의 산 증인으로 USC 재학시절부터 많은 활동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한미연합회를 창설하여 전국 규모의 한인단체로 만든 바 있다. 지금은 한인 정치력 신장단체 아이칸(Ican)을 운영하면서 정치 컨설팅을 하고 있다.

영 김 약력

1962년 10월생
USC 경영학 전공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 보좌관
2014년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2021년 캘리포니아 제 39지구 연방하원의원



◀ 사진=영 김 / 출처=영 김 공식 Flickr 계정